

‘금덩이 섬’ 완도 금당도, 2021 전남도 가고 싶은 섬 선정

완도군,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 씩 총 50억 지원

2015년부터 소안도·생일도·여서도 등 총 4개 섬 선정

완도군은 ‘금덩이 섬’이라 불리는 금당도가 전라남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2021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전남 도내 5개 시·군에서 8개 섬이 선정되었으며, 완도 금당도와 진도 금호도가 최종 선정되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섬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들이 사업의 적합성 및 창의성, 섬 고유 생태자원, 매력적인 섬 문화, 주민 참여 의지 등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 및 정례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금당도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금당도는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 원 씩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경관 개선, 생태복원, 문화관광 자원 개발, 주민 소득 발굴 사업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가장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금당도에는 538가구, 98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파도와 풍우에 씻겨 신비로운 형상을 이룬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해안절벽으로 형성된 금당 8경을 비롯해 세포 전망대, 은금포 해수욕장, 해안 일주도로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보물 같은 섬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 후기 학자 송시열의 가르침을 받은 위세적이 금당도를 배경으로 지은 해양 기행 가사 문학서인 ‘금당별곡’을 역사문화 지원 사업 계획에 반영한 점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은 금당별곡 내용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상하고 이를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가고 싶은 섬 금당도 가꾸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



있던 보물 같은 금덩이 섬 금당도를 ‘오래 살고 싶고, 꼭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는 총 18개 섬이 선정됐으며, 완도군은 2015년 소안도, 2016년

생일도, 2018년 여서도, 2021년 금당도 등 총 4개 섬이 선정되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 다시래기 소재 영화 ‘매미소리’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진도군은 진도지역에서 전해지는 다시래기를 소재로 한 휴먼영화 ‘매미소리’(이충렬 감독, 자유로 픽처스 제작)가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공식 초청됐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된 다시래기는 진도지방에서 출산 전날 밤 초상집 마당에서 광대들과 상여꾼들이 벌이는 민속놀이로 국내 영화에서는 최초로 다뤄지는 소재다. ‘매미소리’는 매미소리로 인한 트라우마로 자살 중독자가 된 딸과 다시래기 광대 아버지의 갈등을 담은 영화다.

이양희, 주보배, 서연우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진도출신 미스트

롯 진 송가인도 특별 출연한 ‘매미소리’는 ‘위당소리’의 이 감독이 매가폰을 잡았다. 올해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이 감독은 “같은 소리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되고 각자 다른 추억들을 불러온다”면서 “매미소리는 화해를 주제로 한 가족 드라마이며 소리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또 소리로 위로를 받는 이야기로, 갈등은 소통이 되고 죽음은 삶이 되는 감동의 변주곡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감독의 지난 2009년 작품 ‘위당소리’는 전국 관객 293만 명을 올려 역대급 흥행작으로 꼽힌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 착수

군동면 파산리부터 작천면 삼당리까지...전액 국·도비

강진군이 북3면(성전면, 병영면, 움천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까치내재 터널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까치내재 터널 개설은 공사 착수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9년 사업이 확정됐고, 2012년 실시계획 완료 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에서 해당 공사가 경제성이 부족하다

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이승욱 강진군수는 까치내재 터널공사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는 한편, 지속적으로 도지사와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2019년 토지보상비 25억 원을 확보하

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2019년 12월 실시계획보완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했으며 기술검토와 계약심사를 거쳐 2020년 9월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7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군동면 파산리부터 작천면 삼당리까지 L=3.3km(터널 0.94km, 진입도로 2.36km) 까치내재 터널 개설이 추진되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606억 원(감리비 43억, 공사비 538억, 보상비 등 25억)으로 군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도비 사업이다. 올해는 사

업비 1억3천4백만 원을 투입해 현장 사무실이 설치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승욱 군수는 “까치내재 터널이 완공되면 북3면은 물론 강진읍을 비롯한 까치내재 남쪽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돼 강진군의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동맥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행복한밥상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정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대표 이상귀)과 유한회사 행복한밥상(대표 박춘자)이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사회적기업은 영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농터(주)에 이어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과 행복한밥상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해남군 사회적기업은 총 3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번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심사를 통해 배정된 인력에 대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된 황칠나무 생산 및 가공을 하며 행복한밥상은 가정편, 반찬류를 제조·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2017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후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장흥군,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선다

청소년 자유로운 창작공간 활용

장흥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창작공간으로 활용될 ‘정남진 유스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운영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 6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0년에는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들여 시설을 구축하고,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년 1억 2000만원의 운영비가 국·도·군비로 지원된다.

(사)한들청소년센터(이사장 선명완)가 주관기관으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SW융합교육협동조합(이사장 이승재)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남진 유스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난 7월에 직원 채용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장흥군청 소년수련관에 1층 상상카페와 3층 창작공공실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말 개소식을 시작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토이스토리, 코딩, 3D프린터, 3D모델링, 보드게임, 나도 목수 등을 운영한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